

봄밀 파종으로 매하구 벌판에 '봄같이곡' 올린다



농사철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봄비는 황금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봄같이 생산의 황금기에 접어든 지금 매하구시 서광진에서는 기온이 반등하고 토양의 습도가 좋은 유리한 시기를 틈타 봄밀을 서둘러 파종하여 봄밀의 '제1전'을 잘 치르고 있다. 기름진 들판은 분명한 광경이다.

매하구시 서광진 동태평촌의 진집체 류진지, 한뫼기 또 한뫼기의 논판이 가로세로 반듯하게 펼쳐진 가운데 이따금 울리는 굉음과 함께 광복파종기들이 논을 오가면서 도랑파기, 파

종하기, 비료주기 등 작업을 한꺼번에 완성하고 있다.

“올해 서광진은 매하구시 당위와 정부의 농업산업 발전 요구에 근거하고 진 관할구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1모작 봄밀 90여무를 재배합니다. 전기에 인공 토지 정리를 했으며 토지 정리후 밀을 알개 묻고, 작은 이랑에 관개하고, 물비료를 주는 일체화 기술을 진행한 덕에 인력도 절약하고 효율도 제고했습니다. 현재 날씨 상황과 결부하여 이를 동안에 파종을 완성하게 됩니다.” 서광진 부진장 류영국은 이같이 말했다.

곡식을 잘 심는 데는 기술이 우선이다. 밀의 파종 현장에서 서광진에서 청해은 밀재배 '토배기전문가' 왕봉국은 1대 1로 농기계수들에게 밀의 광폭 작은 이랑 파종법 조작 시의 주의사항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먼 며칠간 매하구시 서광진 관련 부문 책임자는 왕봉국과 함께 논판에 들어가 현장에서 '맥을 짚고 회전'하고 로동자들을 지도하여 과학적으로 파종하고 동시에 농기계 생산물자 비축, 농기구 점검 수리 등 사업을 조율하여 봄밀 생산에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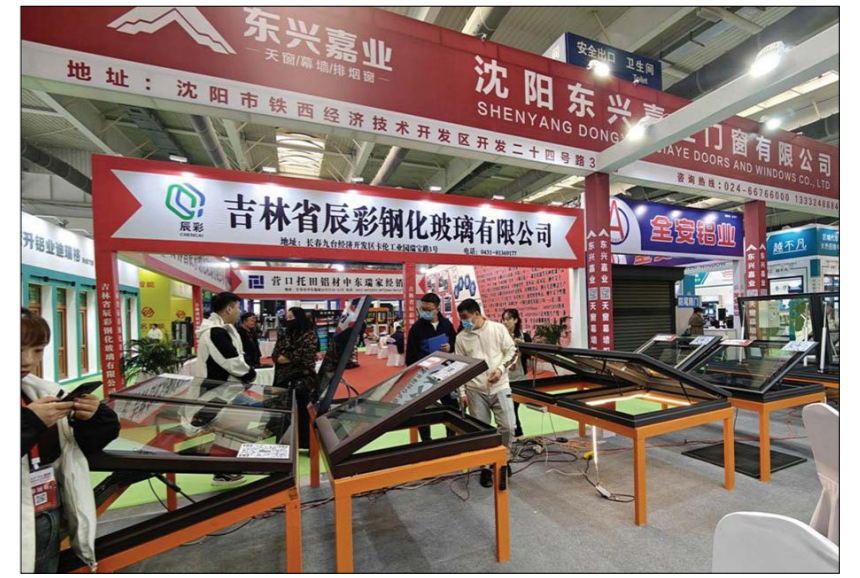
“밀 수확후 2모작으로 해바라기를 심는데 해바라기 꽃이 피는 시기에는 관상할 수 있고 해바라기가 성숙되면 기름을 짤 수 있지요. 서광진은 지속적으로 매하구시 당위와 정부의 농업산업 요구에 따라 진 집체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류영국은 올해 진에서는 1년간 '한밭에 2모작'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봄에는 봄밀을 재배하고 가을에는 해바라기를 재배하여 1년에 두번 수확하는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확량과 증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매하구시 서광진은 봄같이 준비 사업을 전력으로 잘 틀어쥐고 우량종과 좋은 방법 배합, 농기계와 영농기술 융합, 생산과 생태 조화를 두드러지게 내세워 진, 촌 집체에서 밀을 200무 재배하고 도화향 등 품종의 비 1,700무, 콩 400무, 해바라기 100무를 재배하기로 했다.

매하구시 서광진은 봄같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농자재를 적극 비축했다. 지금까지 진에서는 중자 141톤, 화학비료 2,990톤, 유기비료 3,500톤을 준비함으로써 농자재를 100% 보장했다. 농기계 점검 수리에 전력을 다하여 현재 이 진의 농기계 구비량 약 2,000여 대중에서 900대는 점검 수리가 이미 전부 끝났다.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들을 통해 광복 증산, 농민 소득 증대, 농업 효의 증대를 전적으로 촉진함으로써 년간 광복의 풍작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유경봉기자 /사진 원요희

제 28 회 건축장식및재료박람회 장춘시



제 28 회 건축장식및재료박람회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박람회에는 1,000여개 기업이 참가해 맞춤형 가구, 옷장, 주방 전기제품, 에너지 절약 건축재료, 신형 벽재, 소방, 스마트 가구, 조명장식 등 제품들을 전시하였다.

박람회는 동북지역의 새 도시 건설의 열풍과 '녹색, 환경보호, 저탄소'의 글로벌 추세에 맞춰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추세, 새로운 상업기회'를 모아 특색이 있고 내실이 있으며 시효가 있는 가구건축재료업의 성취로 거듭나고 있다.

/류향휘기자

공업기업, 1월-2월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올 들어 시장 수요가 회복되면서 공업기업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월-2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전년보다 3.4% 포인트 확대됐다.

공업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경영주체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규모이상 공업기업중 국유지분 우위 기업, 민간기업의 리유은 각각 0.5%, 12.7% 확대되고 외국인 및 향향,

오문과 대만 투자 기업의 리유은 31.2% 증가했다. 대중소형 기업의 리유은 각각 8.0%, 6.0%, 18.9% 씩 늘었다.

왕신 국가통계국 공업사 수석통계사는 1월-2월 공업생산이 전반적으로 한층 더 회복되었다며 최근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와 유향 수요 부족, 기업 수익성에 대한 부담 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공업경제 회복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넷

'고양이모래' 팔아 9 억원 매출

곡물, 채소와 육우로 유명한 내몽골 냉성현에서 '고양이모래'라는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지난해 9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내몽골 적봉사에 위치한 냉성현은 풍부한 벤토나이트(膨润土) 자원과 함께 40여개의 관련 가공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30개 이상이 '고양이모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냉성현에 있는 반려동물 용품 기업 총애회사의 송지달 부사장은 "강한 흡수력과 응고력을 가진 벤토나이트 점토는 고양이모래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재료로 최근 수년간 급부상해왔다."고 설명했다. 20여년의 노력 끝에 냉성현의 '고양이모래'는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지난해 이 현의 '고양이모래' 산업은 9억원의 매출과 약 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냉성현은 1년에 약 150만톤에 달하는 벤토나이트 '고양이모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현지 기업들은 1,400여개의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으며 생산된 '고양이모래'는 일본, 타이, 아랍주장국령방, 칠레 등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냉성현은 산업 강화를 위해 먼저 날림이 없는 수용성 '고양이모래' 등 고급 친환경 제품에 주력하면서 '고양이모래'를 전면에 내세워 '펫+이코노미' 시술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냉성현공업정보화과학기술국 부국장 호지원은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필수 용품, 장난감, 의류, 침대 등 관련 프로젝트를 도입 및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도시 반려동물 소비시장은 2022년보다 3.2% 증가한 2,79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고양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 늘었다.

/신화넷

매하구 제 1 회 중외상품박람회 개최



4월 6일, 매하구 제 1 회 중외상품박람회가 매하구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열렸다. 박람회 현장은 인파로 붐비고 상품 거래가 기세 높게 진행되었다. 4월 14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 20개 국가와 지역의 360여개 기업이 피아노, 수공조각, 공예품, 복식, 가정용품 등 근 2천종의 상품을 전시했다.

/유경봉기자 /사진 원요희



국가개발은행

1분기 농지개발 특별대출 지난해 두배 이상

국가개발은행이 농지 개발과 보호 및 토지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 1분기 국가개발은행은 25.9억원의 농지개발 특별대출을 발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최근 수년간 국가개발은행은 량식 안전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전역 13개 곡물 주산지의 고표준 농지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 금융 지원을 제공해왔다. 국가개발은행은 다음 단계에 농촌 인프라 건설, 농업 분야 과학기술혁신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신강 고표준 농지 핵심시범구의 목화밭에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정밀 파종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신화넷

미래 량곡 생산, 인재 · 과학기술혁신 관건

미래에는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될까? 농업이 천지대본인 것 만큼 올해 전국 '량회' 기간에도 량신문제가 대표, 위원들의 화제에 많이 올랐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호북성생물농약공정연구중심 부주임인 류효염은 "관건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인재를 향촌에 흡인하려면 당지에서 특색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과학기술혁신의 힘을 빌려 전통적인 농업생산 모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농업이 주로 '사람'에 의거했다면 현대농업의 관건은 '기계'에 있다. 특히 첨단농기구는 생산능률을 크게 높이고 인건비, 비료 투입 등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중국제 1 트랙터집단 유한회사 회장인 류계국은 "농업은 친환경과 기술을 중시해야 하는데 물질장비, 특히 농기구는 량식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핵심 고리"라고 말했다.

중국제 1 트랙터집단유한회사에서 개발한 다기능 전자동 지능 고추 파종기를 놓고 볼 때 도랑을 파고 막을 덮고 종자를 심는 등 일차적 절차를 이 기계로 완수하면 인공작업에 비해 20~30배로 능률이 높아진다. 류계국은 첨단농업기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농기계 기업의 기술 및 상품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며

박약한 장비 및 관건기술 돌파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응용을 하도록 기업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근년에 우리 나라 신형 농업주체 발전은 아주 빠르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사평시에 위치한 봉황산농기계합작사 리사장은 한봉향은 이미 158세대의 성원을 거느리고 있고 주변의 9개 촌, 800여세대의 농가를 봉사, 견인하고 있다.

"대형 파종기부터 수확기 그리고 생물농약을 뿌리는 드론까지, 간단한 농업에서 '지혜'농업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 트랙터, 지능 식물보호기, 지능 파종기 등 장비들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 한봉향은 지난해 이 합작사의 량곡 총산량은

2,000여만근에 달해 농민들에게 실질적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소개했다.

농촌 건설도 역시 자질 높은 인재를 수요한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길림좌단력건강산업집단유한회사 리사장은 "자질 높은 농민을 양성하는 것은 새시대에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관건 요소이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업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동력 원천이다."고 하면서 산업의 수요와 지방 특색을 제정하고 더욱 많은 과학연구기구와 농업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권의했다.

/과기일보

장춘시 쌍양구 고표준 농지 건설에 박차



일전 장춘시 쌍양구 고표준 농지 건설 프로젝트가 전부 시공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당지의 농업 생산 조건을 더욱 개선하고 토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며 농업 효율 증대와 농민 소득 증대를 촉진할 전망이다.

쌍양구 태평진 고표준 농지 프로젝트 현장에서 여러대의 대형 기계가 동을 울리며 높은 곳의 흙을 파서 지형이 낮은 곳을 채우고 도랑을 파서 쌓인 흙을 운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며 일군들이 기계로 판 수로 안에서 번식을 쌓느라 건설현장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태평진 고표준 농지 건설 프로젝트는 토문, 배대하, 일면산, 신촌 등 4개 촌을 포함하며 3월 1일에 착공했다. 현재 각 촌에서는 토지 상황에 근거하여 도랑 파기, 자재 준비, 돌 쌓기 등 공사를 시작했으며 6월말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료해한 데 의하면 쌍양구 2024년 고표준 농지 건설 중대 프로젝트에는 16.7만무의 토지가 포함되며 평호가 두, 제가진, 태평진, 룡학진 등 4개 향, 진과 가두의 18개 행정촌이 포함된다.

/길림일보